

구글 검색어 통계로 알 수 있듯이 theory of women's liberation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. 비단 구글통계 뿐만 아니라 직접 검색을 해보아도 마찬가지임.

가끔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"여성 해방에 대한 이론"이라는 뜻으로 쓰일때이지, 어떤 독자적인 이론 사 조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님

다만 women's liberation movement라는 용어는 많이 쓰는데, 이 용어는 광의로는 "여성운동" 일반, 협의로는 "1960~80년대에 부흥했던 여성운동"이라는 뜻으로 쓰이지, 맑스주의의 독자적인 계급적 여성운동을 지칭하는 뜻으로 쓰이지 않음

그러므로 한국에서 '페미니즘이 아닌, 여성해방론이다'라는 레토릭은 결국 (양자 모두 서구에서 수입해온 개념이라는 점에서) 그 닥 이론적으로 정교한 논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. 오히려 그 안에 자생적 여성운동과 스스로를 구분지으려 하는 정치적 동인이들어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됨.

결론 : 여성해방론이든, 맑스주의 페미니즘이든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자. 이러한 용어를 둘러싼 논쟁에는 정치적 고려가 들어있다.